IFES

뉴스레터

2024년 9월호

IFES NEWSLETTER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뉴스레터 24호(9월) 목차

연구활동

1. 학술활동 03
2. 교수 연구활동 07
3. Fellowship 사업 13
4. 한반도 정세 동향 15

연구소 소식

1. IFES 동정 29
2. 언론 속의 IFES 30
3. IFES 도서관 33
4. 예정사항 36
5. 안내사항 37

연구활동

학술활동

교수 연구활동

Fellowship 사업

한반도 정세 동향

IFES

1. 학술활동

가. 제10차 삼청포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8월 27일(화) 19:00 평화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10차 삼청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조병제 초빙석좌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트럼프(Trump): 사람, 정치,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조 교수는 발표에서 2024 美대선과 관련하여 “한국의 최대 관심사는 △누가 이기느냐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3가지일 것”이라고 화두를 던지면서, 대선 승자에 대한 전망에 대해 “2024 美대선은 양극화된 미국 정치 현실에 비추어 몇몇 경합 주에서 적은 수의 유권자들이 투표 결과를 결정하는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 후보 측은 법률팀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투표 결과를 두고 소송과 대립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미국 대선의 결과는 한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트럼프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시장경제와 자유무역 질서보다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로의 전환은 더욱 빨라질 것”이며,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트럼프 후보가 주장하는 ‘미국제일주의’ 정책 요소의 상당한 부분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반도의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도 “△방위비 분담 문제 △주한 미군 문제 △북미관계 개선 문제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조 교수는 “한국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면서 “전환기 상황에서 복합적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를 마친 후 포럼에 참석한 인사들과의 질의 응답이 있었다.

< 발표내용 요지 >

1. 2024년 미국 대선과 관련하여 한국은 3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음.

- 첫째) 누가 이기느냐? / 둘째)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 셋째)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2. 2024.7.15.~18.간 공화당 전당대회(RNC)에 이어 2024.8.19.~22.간 민주당 전당대회(DNC)가 마무리됨으로써 양대 정당의 대선 출정식이 마무리 되었으며, 11월 5일 투표일까지 이제 두 달 반이 남았음.

- 양측이 모두 승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양극화된 미국 정치 현실에 비추어, 이번에도 몇몇 경합 주에서 적은 수의 유권자들이 투표 결과를 결정하는 박빙의 승부가 될 전망임.
- 양측은 투표 결과를 두고 법률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법률팀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만큼, 투표 결과를 두고 소송과 대립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음.

3. 한국은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미국 대선의 결과는 한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임.

- 헨리 키신저는 2018년 영국 언론 회견에서 “트럼프는 역사상 한 시대가 종언을 고할 때 등장해 그 시대의 가식을 벗겨내는 인물일 수 있다”라고 했음.
- 트럼프는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우선, ‘대선 불복’이라는 사태를 만들어 냄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투표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에 이의를 제기함.
- 다음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두 번째 핵심 원리인 시장경제와 자유무역 질서를 거부하고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함.
- 마지막으로, 미국이 패권적 군사력으로 제공해 오던 공공재로서의 국제 안보에 값을 매기고 있음. 즉, 트럼프 등장 이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3가지 핵심 요소가 모두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 유의할 것은 이러한 자유주의 질서의 이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그 질서에 내재 된 사회 경제적 모순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결과라는 점임.
- 이와 같이 누적된 모순은 트럼프에 의하여 '분노, 분열, 진영의 정치'가 되어 나타나고 있음.
-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미국 제일주의로의 전환은 더욱 빨라질 것임.

4. 미국은 트럼프 1기 집권 때부터 이미 커다란 변화를 시작했음.

- 트럼프가 주장하는 정책 전환은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음.
- 지금의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무렵의 미국이 아님. 미국의 상대적 국력은 약해지고 있으며, 미국은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 해외개입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제조업 재건을 통해 국력을 강화하자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적어도 미국 국민의 절반이 지지를 보내고 있음.
- 한반도와 관련해서도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북한-미국 관계개선 문제 등 몇 가지 의제를 언급해 오고 있음.
- 트럼프의 뒤를 이어 집권한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가 시작한 미국 제일주의 정책의 많은 부분을 계승해 왔음.
- 이번에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트럼프가 주장하는 "America First" 정책 요소의 상당한 부분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어 보임.
- 미국 학계와 전문가들도 "규칙 기반 질서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시대는 끝났다", "양극화된 미국은 지금의 도전에 대응할 능력이 없다"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음.

5. 현대의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탄생하고 발전했음.

- 한국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음.
- 전환기 상황에서 복합적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함.

나. 중국 상해 외국어대 국제관계 및 공공사무대학 연구진 방문 간담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8월 2일(금) 10:00 평화관 1층 대회의실에서 궈슈용(Guo Shuyong) 상해 외국어대 국제관계 및 공공사무대학원장 등 연구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동 간담회에는 궈슈용(Guo Shuyong) 상해 외국어대 국제관계 및 공공사무대학원장, 왕싱싱(Wang Xingxing) 센터장, 후위난(Hu Yuan) 하남성 부주임, 레페이즈(Le Peizhi) 강서성 변호사, 장이슈(Zhang Yishu) 절강성 주임, 왕샤오화(Wang Shaohua) 박사연구생, 순이링(Sun Yiling) 박사연구생, 리우이이(Liu Yiyi) 비서, 정친(Zheng Qin) 서울대 교육대학원 박사연구생과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중관계 발전방향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으며, 특히 양 기관은 향후 더 많은 교류와 자료 교환 등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한편, 연구소를 방문한 궈슈용(Guo Shuyong) 상해 외국어대 국제관계 및 공공사무대학원장 등은 박재규 총장을 예방하고, 도서관을 둘러보면서 특수자료실에 보관되어 있는 북한 원전 등 2만여종의 북한 자료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2. 교수 연구활동

가. 북러관계 평가와 전망

(2024.8.13. 중국 산동대 동북아학원 주최 세미나 발표 주요내용: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 **북러 관계 밀착 배경**

- 미중 경쟁 심화와 미러 대립관계 악화로 조성된 새로운 국제질서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김정은과 푸틴의 이해가 합치되어 북러관계가 급속도로 강화

- 러시아 측 수요로는 △북한의 군사적 지원 △외교적 고립 극복 및 반미·반서방 리그 확보 △북한과의 관계 밀착을 통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신장 △대외관계에서 일방적 의존관계 형성을 피해 온 북한의 전통적 입장을 활용하여 북한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해 온 중국 견제 등

  *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포탄 등 재래식 무기 재고가 상당하고, 과거 군사 기술 지원으로 호환이 가능한 북한과의 군사협력은 러시아에게 매력적 카드
  *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적 규탄의 대상이 되고, 서방으로부터 사상 최대의 제재도 받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북한처럼 전면적 지지를 표명하는 지원국은 외교적, 정치적 측면에서 매우 소중
  * 대미, 대 서방 대립 노선을 함께 하는 북한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맺음으로써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응하고 그간 부침을 겪어 온 북한과의 관계를 확실히 정립
  *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건, 장기적으로는 푸틴이 기획해온 러시아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신동방정책 재추진을 대비하여 북한과 포괄적 협력 기반 구축

- 한편 북한은 이른 바 '신냉전' 구도 속에서 독자적 생존과 발전의 기회 포착

- 미중 전략적 경쟁과 미러 대립의 심화는 진영대립 속에서 상대적 체제 안전을 구가하였던 과거 냉전의 추억과 전략 소환[1)]

- 북한의 대러 관계 강화 두 번째 수요는 고급 군사기술의 확보 필요성

  * 북한은 지난 2023년 5월과 8월에 1·2차 군사위성 발사에 모두 실패하였으나, 3개월도 안된 11월 21일 세 번째 발사에서 성공[2)]

- 세 번째로는 대북 제재의 무력화 추진인 바, 2024년 3월 러시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소속 대북 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중지
- 네 번째,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긴밀히 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감할 수 있는 점도 매우 중요

■ 북러 관계 밀착의 파급효과

• 러시아로서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지원 제공을 통해 전쟁 수행 능력 유지 및 강화에 상당한 도움 확보

• 두 번째 살펴볼 포인트는 한러관계의 악화
- 2024년 6월 러시아가 북한과 '자동적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을 체결하자, 한국은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나서서 이를 규탄하는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형 무기 지원 의사 시사[3)]

• 북러관계 긴밀화의 세 번째 파급효과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 북한 핵 능력 강화를 우려하는 한국이 북러간 관계 긴밀화를 안보 위협사안으로 간주, 대처하면서 한미일 협력 제고로 이어지는 구조 구축

• 중국은 북러 관계의 빠른 진전을 동북아에서의 이해관계를 좀 더 복잡하게 하는 사안으로 인식
- 북러 결속과 이에 대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역내 미국의 군사적 개입과 일본의 무장 촉진
- 북한은 러시아와의 유대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성을 감소시키려 할 것이며, 그 만큼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감소할 가능성

• 북러 관계의 긴밀화는 북한의 '신냉전' 및 '다극화' 정세 인식을 더욱 강화
- 보다 대담해진 핵능력 증진을 위한 실천적 도발 지속 / 아울러 적대적 대남 인식도 더욱 확산

■ 전망 및 제언

• 북러관계가 급속히 긴밀해지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변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따라서 향후 전쟁의 향배가 북러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가시적인 기한내에 평화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러시아의 대외 협력 수요는 전쟁 수행에서 전후 복구 및 경제 활성화로 변화될 것이고,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는 협력의 성격은 극히 제한적으로 변화

- 종전 및 재건 단계에서 러시아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모색 예상

  * 동북아에서는 중국을 제외하면, 북한에 대한 협력수요보다 한국과 일본과의 경제협력 복원이 추진될 가능성 농후

•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황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어 전쟁이 장기전 양상을 띠게 되는 경우

-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대북 협력은 지속되고, 안보를 고리로 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더욱 밀착
- 북한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한미간 공동 노력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한미일 안보협력은 단계적으로 고도화

  * 북한은 '신냉전'과 '다극화'의 공간안에서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이 최대한도로 확장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 형성을 위해서도 노력

• 한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등을 카드로 러시아에 북한의 핵 능력 신장을 위한 군사 기술적 지원은 절대 불가함을 분명히 전하는 한편,

- 전쟁 이후 양국간 협력의 청사진 등을 공유함으로써 미래 협력계획 제시
- 2024.11월 美 대선 이후 북미 대화의 개시 및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
- 아울러 역내 평화 정착이라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 노력도 긴요

1) 실제로는 그때보다 오히려 여건히 낫다고 여길 수도 있음. 냉전 당시의 러시아는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대립할 정도의 실력은 되었어도 경제적으로는 적수가 되지 못했으며, 중국 또한 1990년대에는 미국 경제의 6%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2021년 기준으로 77%에 육박

2)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개최된 두 번째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군사 정찰위성 개발 기술 지원 방침을 직접 밝힌 사실에 주목할 필요

3) 그러자 푸틴은 바로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투 구역에 보내는 것은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위협

나. 학술활동

임을출 교수

1)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민주평통 칭다오협의회 주최 '칭다오 한반도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발표
- 일자/장소: 2024. 8. 9.(금) / 중국 칭다오 쉐라톤호텔 컨퍼런스룸
- 내용: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협력 과제

2) 북한연구소 발간 '북한학보 상반기호(2024년)' 논문 게재
- 일자: 2024. 8. 30.(금)
- 내용: 김정은 정권의 반동사상문화 통제-특징과 함의

안호영 초빙석좌교수

1) 문화일보 주최 '충돌하는 세계와 한국의 길' 세미나 사회
- 일자/장소: 2024. 8. 27.(화) / 상공회의소 세미나실
- 내용: 제2세션 "탈 세계화 시대, 경제 어디로 가나"

곽태환 초빙석좌교수

1) 제49회 LA통일전략포럼 및 출판기념식 개최
- 일자/장소: 2024. 8. 27.(화) / LA 한인회관 세미나룸
- 내용: (포럼) 차기 美행정부의 대한반도정책, (출판기념식) 한반도 문제해법: 새로운 모색(한국학술정보, 2024)

최영준 초빙교수

1) 중국 산동대 동북아학원 주최 세미나 발표
- 일자/장소: 2024. 8. 13.(화) ~ 14.(수) / 연길시 연변국제호텔
- 내용: 북러관계 평가와 전망

2) 강원대 남북교류협력 아카데미 제7기 특강
- 일자/장소: 2024. 8. 28.(수), 강원대 중앙도서관
- 내용: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평화

다. 연구활동

임을출 교수

1) 한국연구재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4년도 한반도 과학기술협력사업' 선정
- 연구기간: 2024. 8. 1. ~ 2025. 7. 31. (1년)
- 연구과제: 한반도 ICT 인프라·서비스 통합방향 모색-4G 이동통신 분야 중심으로
- 연구비: 6천만원

〈 연구 주요내용 〉

- 최근 북한은 '이동통신망에 의한 수자경제(디지털경제)'를 강조하면서 디지털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4G, 5G 이동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동향을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 모색
  - 북한은 수자경제의 개념으로 '경제관리가 수자화된 지식과 정보를 핵심요소로 하는 경제', 또는 '정보통신기술과 정보망을 기본으로 발전하는 경제'로 정의
  - 이 개념에 따라 북한은 정보통신 사업에서 일대 변혁과 전진을 가져올 수 있는 4G, 5G 이동통신 전환을 통한 국가경제의 전면적 도약과 과학기술력 강화 추구
- 미래의 한반도 ICT 인프라와 통신서비스 분야 통합을 위한 방향 모색에 필요한 핵심적인 정책, 제도 및 기술 변화 동향 파악
  - 세계적 수준의 통신 현대화와 위성통신의 급속한 발전을 통해 정보통신 인프라를 최첨단 수준으로 접근시키려는 북한의 ICT 인프라 정책 및 제도변화 분석
  - 최근 ICT 인프라와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동향과 기술수준 평가, ICT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 변화실태, 발전 제약요인과 극복과제 등을 검토
- 북한의 ICT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평가에 기초해 4G 이동 통신분야 중심으로 향후 비핵화 진전시 단계별 남북한 기술협력 및 공동사업의 모델을 제시

라. 언론활동

임을출 교수

1) YTN 출연 (2024. 8. 15. 목)
- 내용: 윤 대통령, 새 통일 담론 제시...'3-3-7' 핵심은?

2) KBS '남북의 창' 출연 (2024. 8. 10. 토 / 8. 24. 토)
- 내용: [이슈&한반도] '재난 리더십' 부각...북미 대화 여지는? / [클로즈업 북한] 복구 앞서 구호...김정은식 재난 리더십

2. 교수 연구활동

안호영 초빙석좌교수

1) 한국일보『안호영의 실사구시』기고 (2024. 8. 26. 월)
- 내용: “심상치 않은 핵무기 확산 위협” 제하, 러시아·중국 등의 핵무기 개발과 핵 군축 협상 반대로 미국 내 핵 능력 확대 여론 확산, 북한이 이에 편승 한반도 안보 상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대한 경계 필요성 강조

2) 코리아타임스 (The Korea Times) 기고 (2024. 8. 21. 수)
- 내용: “Why I have confidence in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제하, 윤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 기간 중 서명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이 확장 억제에 도움이 되는 이유

김광운 초빙석좌교수

1) 중앙일보『북조선실록』관련 인터뷰 (2024. 8. 10. 토)
- 내용: “갈라진 한반도, 남북 서로 정확히 알아야 적대완화 가능”

2) KBS ‘남북의 창’ 통일로 미래로 인터뷰 (2024. 8. 24. 토)
- 내용: 북한 사료 집대성...『북조선실록』200권

곽태환 초빙석좌교수

1) 통일뉴스 칼럼 기고 (2024. 8. 13. 화)
- 내용: “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의 문제점과 전망”

조병제 초빙석좌교수

1) YTN ‘뉴스나우’ 출연 (2024. 8. 21. 수)
- 내용: "해리스 지원사격 나선 오바마 부부... 상승세 이어질까?”

2) 내일신문 ‘조병제의 미국 대선 톺아보기’ 기고 (2024. 8. 22. 목)
- 내용: “변곡점에 선 미국, 세계 그리고 한국”

3) YTN ‘뉴스퀘어 10’ 출연 (2024. 8. 23. 금)
- 내용: 해리스 곧후보 수락 연설... 美대선 장정 시작”

권기원 초빙교수

1) 아주경제 ‘권기원 칼럼’ 기고 (2024. 8. 1. 목)
- 내용: “저출생 반전을 위한 4가지 제언”

3. Fellowship 사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펠로 6명(中판 빈빈, 中리아오 무춘, 美김연희, 中양향봉, 日호리야마 아키코, 日미아모토 사토루)을 대상으로 8월중 △1차례 특강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방문 △연구자 중간 발표회(펠로 2명) 등을 실시했다.

가. 제5차 특강

- 일시/장소: 2024. 8. 20.(화) 14:00 / 평화관 대회의실
- 강연자: 제임스 히난, 서울UN인권사무소장
- 참석자: 펠로 6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직원 등
- 주요내용: 유엔 인권사무소의 역할과 유엔 가입국들의 인권 침해 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 특히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 조사의 한계점(△북한 내부사정 모니터링 제한 등 정보 부족 △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남한에서는 정치화 된다는 점)이 있다고 강조

나.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방문

- 일시/장소: 2024. 8. 29.(목) 14:00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 참석자: 펠로 5명, 김상범 주임교수, 실무진 등
- 주요내용: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를 방문하여 △ 북한자료센터 소개 및 견학 △센터 이용방법 안내 △ 북한자료 이용관련 질의·응답을 가졌다.

〈 5차 특강 〉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방문 〉

3. Fellowship 사업

다. 연구자 중간 발표회

- 일시/장소: 2024. 8. 28.(수) 14:00 / 평화관 대회의실
- 발표자: 펠로 2명(中양향봉, 日호리야마 아키코)
- 참석자: 펠로 4명,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장, 김상범 주임교수, 유영수 북한대학원대 교수, 정재욱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실무진 등
- 주요내용: 中양향봉 펠로는 “동아시아 블록 지정학의 부활” 日호리야마 아키코 펠로는 “윤정부의 북한인권정책과 국제협력-강제실종자를 둘러싼 국내 정치와 외교 간의 과제를 중심으로”의 주제로 각각 중간 연구 발표 후 토론을 통해 최종 발표자료에 반영할 내용들을 논의하였다.

4. 한반도 정세 동향

가. ‘8.15 통일독트린’ 주요내용 및 국내·외 반응

1) ‘8.15 통일독트린’ 주요내용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된 ‘8·15 통일독트린’ 주요내용≫

• ‘3대 통일비전’, ‘3대 통일 추진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의 ‘3-3-7’ 구조로 구성

*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은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 구성

구분	주요 내용
통일 비전	1.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2.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3.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통일 추진전략	1. 자유 가치관: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 배양
	2. 북한 주민 변화: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
	3. 국제사회 연대: 자유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통일 추진방안	1.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2. 북한 인권 개선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3.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확대
	4. 북한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추진
	5. 북한이탈주민 역량을 통일 역량에 반영
	6.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7. ‘국제한반도포럼’ 창설, 국제사회 지지 견인

2) ‘8·15 통일독트린’에 대한 국내·외 반응

〈 국내 전문가 반응 〉

- **남성욱(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장)** "현 정권에서 처음으로 대화협의체를 제안한 만큼 북한이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차선의 최선"이라고 평가 (8.15. 뉴스1)
- **전봉근(국립외교원 명예교수)** “화합이나 화해의 메시지보다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적 가치, 북한 정권과는 상극에 있는 것을 윤정부의 통일 정책으로 선명하게 선언하는 쪽을 택했다”고 분석(8.15. 세계일보)

4. 한반도 정세 동향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당초 남북 화해 협력 기반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해 보려 했으나 현 정치 지형하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통일방안을 대체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인식한 듯하다”고 진단(8.15. 세계일보)
-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의 정세에 맞게 상대에게 적절하게 현실성 있는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로 변화시킨다는 기조에서 대화를 제의하면 수용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8.15. 뉴스1)
-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자유, 인권이라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통일 정책이라는 것은 상대방(북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며 "독트린이든, 담화든, 정책이든, 어느 정도의 이행력을 담보하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8.15. 뉴스1)

〈 미·중 정부의 반응 〉

- **Mira Rapp-Hooper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국장은** “북한의 무반응에도 한·미·일 3국은 외교적 수단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 밝힘.(8.16. Reuters)
  -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의 길을 열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를 지지”한다고 설명(8.16. VOA).
- **주미중국대사관은**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과 대한민국(ROK)”이라며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모든 조치를 지지”하고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희망”한다고 밝힘.(8.16. VOA).

〈 해외 언론 반응 〉

-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Reuters·AFP·Bloomberg·UPI·EFE· Nikkei Asia·교도·아사히·마이니치·산케이·후지TV 등)
-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 (AFP·UPI·EFE·아사히·마이니치·산케이·TV아사히·TBS 등)
-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시작할 것”(Reuters· Bloomberg·NTV·후지TV·산케이 등)
- “북한주민이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 확대”(EFE· Nikkei Asia·마이니치·TV아사히 등)
- “통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요미우리·NTV·TBS·후지TV 등)
-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하여,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Reuters·EFE·요미우리·산케이 등)
-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 추진”(AFP·Bloomberg·TV아사히 등)

• “자유 통일이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 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이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Reuters·AFP·Nikkei Asia 등)

나.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 공동성명 발표 주요내용 (8. 18.)

• **(주요내용)**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3국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

- 공동성명은 “한미일 정상회의의 정신은 우리를 계속 고취시키며, 캠프 데이비드에서 우리가 수립한 원칙은 우리의 전례 없는 협력의 로드맵이 되고 있다”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 비전에 대한 연대를 이어나가면서,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전문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은 우리의 역사적인 정상회의 이후 1년간 3국 협력에서 이루어진 대단한 진전들을 기념한다. 한미일 정상회의의 정신은 우리를 계속 고취시키며, 캠프 데이비드에서 우리가 수립한 원칙은 우리의 전례 없는 협력의 로드맵이 되고 있다. 우리는 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진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및 위협에 있어 우리의 협의에 대한 공약을 지켜나간다. 우리는 3국 간에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연결된 안보 협력을 제고하고, 공동의 경제적, 기술적 우선순위를 더욱 일치시켜 나가며,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공조를 증진하고, 견고한 인적 유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우선순위에 대한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통해 이러한 공동의 목표들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우리는 3국 간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최초 시행,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서명, 북한의 사이버 범죄 및 여타 불법적 수단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원 마련 시도 대응에 초점을 둔 3국 실무그룹이 이루어낸 진전을 비롯한 3국 협력의 성과를 축하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 비전에 대한 연대를 이어나가면서,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의 협력이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며,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

다. 2024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특징 및 북한의 반응

1)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특징

- **(주요내용)** 합동참모본부(합참)와 주한 미군은 8월 14일 공동브리핑을 통해 8.21. ~ 8.31. 까지 11일 동안 UFS 연습을 시행한다고 발표
  - 합참은 "군은 대비 태세, 사이버 공격과 테러 대응, 국민안전 지원 정부 부처의 전시대비 연습과 실제훈련으로 강화된 정부연습을 지원해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 이라고 강조

≪ 2024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특징 ≫

- 점증하는 북한 미사일 위협, GPS 교란 및 사이버 공격,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위협과 최근 전쟁 양상 등 현실적인 위협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하고,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에 중점
  * 핵협의그룹(NCG)에서 검토한 핵·재래식 무기 통합 운용(CNI) 공동지침은 이번 훈련에 적용되지 않음.
- UFS와 함께 진행한 '을지연습'(8. 19.~8. 22.)에서 북한의 '핵 공격'을 가정한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 상황조치 훈련 처음 실시
- 연합·합동상륙훈련, 통합화력훈련,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AP) 등 연합야외기동훈련 48회 실시(작년 대비 10회 증가)
- '전략사령부' 창설(10월 예정) 관련 UFS 기간 중 전략사령부 임무 수행능력 검증 진행
- 유엔사 회원국 확대 참가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정전협정 준수 여부 관찰

2) 북한의 반응 (8.18. 외무성 '공보문' 발표 / 8.19. 노동신문 게재)

- UFS를 '(북한과의) 핵대결 가상 훈련이 포함된 핵전쟁시연', '나토성원국들까지 참가하는 공격형의 다국적무력시위'로 규정하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기준으로 한·미의 대북 (핵)억제 강화 조치들을 열거하며 비난
  - 미국 '핵태세검토보고서(NPR, 2022)': 북한의 (핵 사용 시) '정권종말' 명시
  - 한·미 워싱턴선언 및 '핵협의그룹(NCG)' 신설, 「한·미 핵작전 지침」 체결
  - 핵추진항공모함 및 F-35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국 첨단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강화
  - UFS 야외기동훈련 강화 등
- '환태평양합동연습(RIMPAC)'과 '스테드패스트 디펜더(Steadfast Defender)' 등 미국 주도 합동군사훈련들이 대 중·러 억제와 지역군사패권 장악을 목표로 진행돼 전지구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이 힘의 균형을 항구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한 데 이어, 북한 정권은 '국가주권과 안전이익, 영토완정을 위한 중대노력'을 계속할 것이라 밝힘.

라. 북한·국제 정세 동향

북한

- **8.2. 김정은, 평안북도 수재민 구출 공군부대 축하방문 연설에서 "적은 변할수 없는 적" (8.3.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김정은은 평안북도 수재민 구출 공훈 공군부대 축하방문 연설에서 '적들'(한국)의 언론들이 "피해지역의 인명피해가 1,000명 또는 1,500명이 넘을것으로 추측된다고, 구조임무수행중 여러 대의 직승기들이 추락된것으로 보인다는 날조된 여론을 전파"하고 있다며, "적은 변할수 없는 적"이라고 언급

- **8.3. 김정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수해 위문 표시에 사의 표명 (8.4.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김정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해 위문을 전하며 인도지원 신속 제공 용의를 밝힌 데 사의를 표하며 "도움이 필요될 때에는 가장 진실한 벗들, 모스크바에 도움을 청할것"이라 언급

- **8.3. 외무성 대외정책실, 한미 '아이언 메이스' 훈련 비난 공보문 발표 (8.4.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은 한미 '아이언 메이스' 훈련을 겨냥한 공보문에서 "미국과 한국의 핵전쟁계획이 실제적이고 구체화된 범행단계에 진입했다"며, "자위적핵억제력강화와 림전핵태세완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한미가 "무분별한 선택이 초래할 파국적후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고스란히 지게 될것"이라고 언급

- **8.4. 김정은, '신형전술탄도미사일 무기체계 인계인수기념식' 참석 및 연설 (8.5.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신형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CRBM TEL) 250대 '국경'(군사분계선을 의미) 제1선부대 인도·배치"
  - 김정은, "해마다 신형무장장비 세대교체 보여줄것 … 전쟁 방지 특별한 억제효과", "전술핵 실용적측면 효과성 제고" 언급

- **8.6. 외무성 대변인 담화, 독일의 유엔군사령부 가입 "조선반도·지역 군사정치정세 악화시키게 될 것" (8.6. 조선중앙통신)**

- **8.8.~8.9. 김정은, 평안북도 수해지역 재방문 및 연설 (8.10.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김정은은 8.8.~8.9. 평안북도 의주군 수해지역을 재방문해 지원물자를 전달하고, 8.9. 위로연설에서 평안북도, 자강도, 량강도 어린이 2,198명, 학생 4,384명을 포함한 수재민 가족 15,400여명에게 평양에서 수해복구기간 보호혜택을 제공할 것이라 발표

- 또한 연설에서 김정은은 “적들(한국)은 우리가 피해를 입은 기회를 악용하여 우리 국가의 영상에 흙탕물을 칠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적은 변할수 없는 적”이라 언급하며, ‘대적관’을 강조

• 8.18. 외무성 대변인 담화, 우크라이나군 러시아 영토 공격 비난 (8.18. 조선중앙통신)

-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을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동시에 미국과 서방이 무기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반러 대리전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 또한 러시아에 대한 지지성원을 표명

• 8.24. 외무성 대변인, 미국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 관련 비난 담화 (8.24.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외무성은 8.21.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이 개정된 ‘핵무기 운용 지침’이 “어떤 특정한 단체, 국가, 위협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다”라면서도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라고 밝힌 데 대해 “《핵위협》 조작”이라 비난
- 또한 외무성은 “우리는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국가의 주권과 안전리익을 드팀없이 수호할수 있는 충분하고 신뢰성있는 핵무력건설을 추진”할 것이라며 핵무기 개발은 ‘정당방위권행사’라고 주장

• 8.24.~8.25. 김정은, 여러 지방공업공장건설사업 현지지도 (8.26.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김정은은 8.24.~8.25. 여러 지방공업공장건설장들을 현지지도하며 ‘지방발전 20×10 정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지방공업공장건설과 함께 보건시설, 과학기술보급거점, 양곡관리시설 건설을 병행할 것을 지시
- 또한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지방발전 10년 목표에 대한 세부 계획과 수행방도들을 해당 부문 책임일꾼들이 연구하여 ‘12월 전원회의’에서 토의심의 및 결정채택하고 연차별 집행할 예정

• 8.24. 김정은,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 무인기성능시험 현지지도 (8.26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김정은은 8.24.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무인기들의 타격시험을 현지지도하면서 전략정찰 및 다목적공격형무인기, 자폭형무인기, 핵어뢰 등 수중전략무기체계, 자폭공격형무인정 개발생산과 무인기 개발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할 것을 지시
- 또한 김정은은 무인기들의 전투적용 시험을 더 강도 높이 진행하여 인민군부대들에 장비할 것을 강조

• 8.26. 북한, 중국의 북중 국경 무선국 설치에 반대입장 표명 (8.27. RFA)

- 중국은 FM라디오 방송 등 목적으로 전국 191개 무선국 설치 계획, 그 중 북중접경지역 부근 시설은 총 17개.
- 북한은 사전 협의 없음 등의 사유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문제 제기

미국/일본

● 일본·필리핀, 남중국해에서 첫 합동 군사훈련 (8.3, KBS)

- 필리핀군은 현지시각 2일 일본 해상자위대와 양국 첫 '해양 협력 활동' 진행...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 견제
- 이번 훈련은 일본과 필리핀이 지난달 8일 상호 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접근 협정(RAA)을 체결한 데 이어 실시

● 일본 기시다 총리, '자위대 개헌 가속' 지시 (8.7, KBS)

- 헌법개정실현본부 회의에서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것과 관련해 이달 말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
- 9월 총재 선거 앞두고 개헌 논의 진전을 요구하는 보수층의 지지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

● 미국, 한국군 전략사령부 창설 추진에 "긴밀히 소통" (8.14, KBS)

-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 "전략사령부 창설은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 한국 정부는 우리와 긴밀히 소통할 것"
- 올해 하반기 창설되는 합참 산하 전략사령부는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3천t급 잠수함 등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며 적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을 예정

● 바이든 대통령, 북중 핵 추이 반영 새 핵무기 운용 지침 승인 (8.20, NYT)

- 북중의 핵무기 보유 증가 예상치 및 북중러 '핵 공조' 가능성 반영(세부 내용 비공개)
- 한국 외교부 "한미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전적 능력과 태세를 구비해 나갈 것"
- 중국 외교부 "미국이야말로 전 세계 최대의 핵 위협 국가" 비난

●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 공식 추인 (8.21, KBS)

- 해리스 후보 "대선 후보가 되어 영광... 이는 평범한 사람들이 주도하는 선거운동이며, 우리는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 것"
-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 바이든 대통령 지지 선언

● 일본·인도, 우주·사이버 분야 협력 강화 합의 (8.21, KBS)

- 외교·국방 장관(2+2) 회의 열어 우주·사이버 분야 협력을 강화 합의
- 양국간은 물론 쿼드의 다른 구성국과도 군사훈련을 계속하기로 합의
- 인도태평양 지역 영향력 키우는 중국에 대한 견제 분석

중국/러시아

- **러시아, 전술핵무기 훈련 3단계 모형 핵탄두 탑재 훈련 (8.1. 연합뉴스)**
  - 비전략 핵전력 훈련 3단계, 이스칸데르 미사일 핵탄두 탑재 훈련
  - 러시아 남부·중부 군관구 미사일 편대, 항공우주군 항공부대 참여

- **8.13. 푸틴, '조선 해방의 날' 기념 축전 및 8.16. 김정은 답전 교환 (8.16.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축전에서 "평양에서 진행된 회담들에서 이룩된 합의들을 철저히 실행하는것"이 러북 간 호혜적 협조확대를 계속 추동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 김정은은 답전을 통해 사의하며 "지역의 평화와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성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며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 지지를 표명

- **8.18. 우크라이나 러시아 본토 공격 (8.18. 한국일보)**
  - 우크라, 지난 6일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침공 2주차
  -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서 우크라 러시아군 포로 2천여명 생포
  - 징집병 중심 국경방어 시스템 약점 도출

- **중-러, 공동성명 발표 (8.23. 아시아경제)**
  - 인공지능(AI), 사이버 보안, 항공우주 및 무역·금융 결제망 협력 강화 언급
  - 서방의 경제재제 관련, 피해국의 보복조치 권리 강조
  - 2025년 제30회 중러 총리회담 예정

- **8.26. 러시아 전문가 대표단, 평양 도착 (8.27. 연합뉴스)**
  - 러시아연방 공업무역성 등 러시아 전문가대표단 26일 평양 도착

마. 해외 전문가 논평

■ **Vipin Narang(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 "북중러 핵무기 계속 늘리면 미국 핵무기 더 배치해야 할 수도" (CSIS, 8.1)**

- 지금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 북한 등 다수 수정주의적 핵 도전국"을 억제해야 하는 "새로운 핵 시대"를 맞이함.
- 중국, 러시아, 북한은 군축이나 위험 감소 노력에 관심이 없고, 각자 핵무기를 빠르게 현대화하고 확대하고 있으며,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무기를 쓰겠다고 공공연히 위협
- 이런 상황은 미국이 핵 공격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최신 핵 억제 수단을 동원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인도태평양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더 경쟁적인 접근"을 강요
- 우리 적들이 현재의 길을 계속 걷는다면 배치된 역량의 숫자를 조정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음.
- 한반도에서의 분쟁은 여러 역내 핵무장 국가가 개입하고 확전될 위험이 있다면서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관계로 인해 핵무장을 한 적대국들이 공조하거나 공모할 우려
-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기보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 NCG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최선의 해법

■ **Bruce W. Bennett(전 미국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분석관): "김정은, 트럼프와도 대화 안 할 것" (RFA, 8.6)**

- 김정은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핵무기이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
- 북한은 2019년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후 미국 측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받고 있음. 억제가 미국의 최선의 대응.
- 김정은의 최종목표는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어서 한반도를 장악하는 것임. 북한이 한미 관계를 이간시켜 동맹을 깨트리고, 한국 내 진보와 보수 간에 남남 갈등을 촉발시키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

■ **Markus Garlauskas, Matthew Kroenig(애슬랜틱카운슬 안보 전문가): "미 인태사령부, 북중과 동시전투 대비해야" (Foreign Policy, 8.6)**

- 대만을 둘러싼 미중 충돌은 지역 전쟁으로 비화해 남북한을 개입시킬 공산이 큼.
-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역내 미군기지의 군사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은 그에 보복하거나 견제할 목적으로 한국, 일본 등의 미군기지를 공격할 강력한 동인을 갖게 될 것.
- 그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에게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도발에 나설 것을 촉구할 강력한 동인을 갖게 될 것임.

- 한국은 역내 미군기지가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한국이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환상'을 중국이 갖지 않도록 해야 하며, 미국은 중국과의 충돌 상황에서도 한국을 지킨다는 철통같은 공약을 견지할 것임을 북한에게 인식시킬 필요
-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등과 다양한 시나리오별 계획 수립과 군사훈련을 공개적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미군의 준비 턱없이 부족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대북정책 주요 논평]

■ **Daniel R. DePetris(Defense Priorities 연구위원): "카멀라 해리스는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The National Interest, 8.23)**

- 북한의 핵, 미사일 역량은 나날이 증강되고 있으나 김정은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미중 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동북아 지역에서 (대북 제재와 같은)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기대하기도 어려움.
- 따라서, 해리스가 새 대통령이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바이든의 대북정책을 "자율주행(auto-pilot)" 모드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음. 북한과 관계 진전이 있으려면 정치적, 경제적 타협이 불가피할 것.

■ **Ifang Bremer(NK News 기자): "카멀라 해리스가 11월에 트럼프를 이길 경우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NK Pro, 8.24)**

- 대북 교섭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와 달리, 해리스는 북한 정권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임.
- 다만, 북한의 지원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해리스에게 북한의 중요도는 상승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임.
- 전반적으로 바이든 시기 대북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Jacob Bogle(AccessDPRK 블로그 운영자): "해리스 정부 하 북미 관계" (The National Interest, 8.26)**

- 많은 전문가들은 해리스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더욱 가까워지는 북러 관계로 인해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 높음.
- 또한, 중동 문제나 불법 이민 관련 등 해리스의 과거 행보를 돌이켜보면 기존 질서와 외교정책에 순응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상함.
- 여건이 된다면 기존 미국 정권들과 다른 대북 노선을 취하게 될 수도 있으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미관계의 역사와 핵에 대한 북한의 요구사항 등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함. 결국, 해리스와 트럼프 중 누가 당선되든, 미국은 향후 한반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Stephan Haggard(UC San Diego 교수): "카멀라 해리스와 북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The National Interest, 8.26)**

- 북한과의 대화가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것이므로 해리스나 트럼프 모두 관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임.
- 또한,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 그리고 중국과의 패권 경쟁 때문에 북한과 핵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임. 해리스 정부의 대북정책은 "제2의 전략적 인내"가 될 가능성이 높음. 바이든 정부 시기와 마찬가지로 한일과의 협력 강화에 더욱 초점을 맞출 것. 한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이 걸어간 외길은 되돌릴 수 없음.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이제 북한의 DNA에 깊이 각인되어 체제 선전의 지속적인 테마가 되어버렸음. 또한, 핵-미사일 개발로 북한의 엘리트 과학자, 공학자와 노동력이 포함된 복잡한 정치경제적 산업체가 형성되었음.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관둔다면 이 엘리트들은 어디로 갈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함.

■ **Robert L. Gallucci(조지타운대학교 교수): "카멀라 해리스와 북한 시나리오 예상" (The National Interest, 8.27)**

- 대통령이 누가 되든 미국 대북정책의 장기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여야만 함. 그렇지 않으면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가가 핵무장에 나설 것임. 또한, 한반도에서의 갈등 심화는 미중 양국 모두에게 손해인 것을 중국에 인지시켜야. 마지막으로, 해리스는 한미의 대북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삼아야만 함. 수명을 다한 제재를 해제하고 불필요한 도발을 유발하는 군사훈련도 재검토하여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그 와중에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가를 명확히 인지시키며 한국을 안심시켜야 함.

■ **Denny Roy(동서센터 선임연구위원): "카멀라 해리스는 북한과의 관계 정체를 받아들일 것" (The National Interest, 8.27)**

- 해리스 당선 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북한과의 관계를 빈사 상태(moribund)에 유지하는 것을 받아들일 것임: 해리스는 북한을 혹독한 독재 체제이자 악의 축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으며, 비핵화는 여전히 미국의 목표이며,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지원이 계속될 것임. 또한, 해리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련 배경지식이 충분하지 않으며 지역 전략 문제에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본 경험이 없음. 따라서, 미국이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해리스 정부는 역대 미국 정부들의 대북정책을 답습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무한한 정체(indefinite stagnation)와 관리가능한 긴장 상태(managable tension)의 수용이 최선일 것.

■ **Ted Galen Carpenter(Randolph Bourne Institute 선임연구위원): "카멀라 해리스와 북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The National Interest, 8.27)**

- 해리스는 북미관계 돌파에 요구되는 참신한 발상(fresh thinking)을 해내지 못할 것. 해리스는 트럼프에 대한 비판의 하나로 트럼프의 대북 정책까지 비판하며 김정은에 "아부하지 않을 것(will not cozy up to)"이라고 말해. 결국 해리스는 역대 미국 정권들의 대북정책을 계승해, 북한을 악당으로 취급해 평양의 공격적 반응을 자아내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임.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한다면 핵 재앙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함.

연구소 소식

IFES 동정

언론 속의 IFES

IFES 도서관

예정사항

안내사항

IFES

1. IFES 동정

가. “2024 글로벌 한마” 프로그램 참가학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방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8월 14일(금) 13:30 통일관 정산홀에서 “2024 글로벌 한마”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 대학생들과 방문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일본 대학생 39명 △중국 대학생 8명 △대만 대학생 3명 △미국 대학생 1명 △태국 대학생 1명 △필리핀 대학생 1명 등 총 6개국 53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박재규 총장은 환영인사에서 “2024 글로벌 한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모두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설립 배경 등 50년 역사를 설명”하고 “글로벌 한마 프로그램을 통해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상황을 이해하고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극동문제연구소 및 북한대학원대학교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도서관 특수자료실 등을 견학하면서 특수자료실에 보관되어 있는 북한 원전 등 2만여종의 북한 자료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 “글로벌 한마” 프로그램은 경남대학교에서 여름방학 중 해외 자매대학 학생들을 초청하여 경남대 재학생들과 체험적 교류활동을 함으로써 학생들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대학의 세계화를 적극 실천한다는 취지로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음.

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인사 변동사항

1) 임형신 초빙교수 (기간: 2024.09.01. ~ 2025.08.31.) / 現국군정보사UDU국가특수정보중앙회 회장
2) 조코리 초빙교수 (기간: 2024.09.01. ~ 2025.08.31.) / 現한국뉴욕주립대학교 조교수
3) 정재용 초빙연구위원 (기간: 2024.08.01. ~ 2025.07.31.) / 前연합뉴스 선임기자
4) 문미리 조교수 (2024.09.01. 경남대학교 창의융합대학 아레테교육부, 전보)
5) 박서화 조교수 (2024.09.01. 의원면직)

다. 평화관 전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 완료

1) 극동문제연구소 평화관의 노후화된 냉난방기 전체 교체 공사를 완료하였다.
   - 공사 기간: 2024.06.27. ~ 08.02. (총 36일)

2. 언론 속의 IFES

가. 김광운(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중앙일보 인터뷰 주요내용 (2024. 8. 10.)

"갈라진 한반도, 남북 서로 정확히 알아야 적대완화 가능"

『북조선실록』 200권 펴낸 김광운(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8일 김광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가 발간한『북조선실록』을 펼쳐 보이면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뒤쪽에는 200권에 달하는『북조선실록』이 빼곡이 꽂혀있다.) 최영재 기자

■ 이 책에 담긴 눈에 띌만한 내용을 소개 한다면.

"북한의 초기 핵개발에 대해선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북한은 1955년부터 61년까지 원자력 분야에서 소련과 적극 협력했다. 양국은 1956년 7월 '연합원자핵연구소 설치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당시 소련은 전자공학과 원자에너지 분야, 대륙간 탄도미사일, 인공위성 발사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북조선실록』191권 387~388쪽에는 모스크바 부근 두브나 소재 연합원자핵연구소 사업에 북한이 참여했던 기록을 비교적 상세히 담고 있다."

■ 이 책이 어떻게 활용되기를 바라는가.

"북한자료에 대한 조사 수집 정리 가공 활용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본다.『북조선실록』의 간행은 이를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특히 북한 당국이 1947년부터 문서 보관과 열람을 통제하고 왜곡해 왔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 책이 이런 어려움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출처:중앙일보]

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도서관 북한자료실 KBS1 TV 방영

KBS1 TV「남북의 창」은 8월 21일(수) 10:50 도서관 북한자료실에 보관되어 있는『북조선실록』 200권의 △발간 작업과정 및 소개 △주요 내용 △발간물 활용사항 △북한자료 DB화 등에 대해 취재 방영하였다.

1) 방송 일시/프로그램: 2024. 8. 24.(토) 07:50 / KBS1 TV「남북의 창」'통일로 미래로'

2) 방송 주요내용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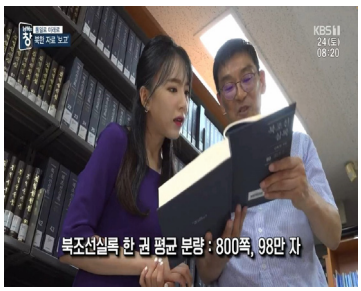
- **박현정(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사서):** "『북조선실록』은 북에서 발행한 신문, 출판물 등의 기본 자료를 하루 단위로 정리해 놓은 북한학계 조선왕조실록과 같습니다."
- **김연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하와이대학 연구원):** "저는 지금 북조선 실록을 보고 있는데요. 냉전시기 소련과 북한 간의 대화와 관련된 전단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외국 학자들이 현재의 북한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김광운(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역사 관련, "과학기술자들을 (소련) 연합핵 연구소에 파견을 해서 함께 활동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초기 북한에 있어서의 핵 연구 접근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만경대 초가집 관련, "새 기와집이라고 돼 있는 거죠. 이들이 초가집을 내세운 것은 기본적으로 김일성도 가난한 노동자, 농민...출신이었다는 걸 설명 해주기 위했던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드러나기도 합니다."

  『북조선실록』 활용과 관련, "통일이 되면 다시 역사는 새롭게 쓰이겠죠. 그때 저희『북조선실록』이 새로운 통일 실록을 쓸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됐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 박현정 인터뷰 〉

〈 김연희 인터뷰 〉



〈 김광운 인터뷰 〉

3. IFES 도서관

가. 추천도서

제 목: Reliability and Alliance Interdependence: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in Asia, 1949-1969 (신뢰성과 동맹 상호의존성: 미국과 아시아의 동맹국들, 1949년-1969년)
저 자: Iain D. Henry (아이안 헨리)
출간년도: 2022년
출판사: Cornell University Press (코넬 대학 출판부)
쪽 수: 258쪽

방위 동맹(defensive alliances)에서 신뢰성(reliability)은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상대국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동맹을 맺지 않았을 것이며, 신뢰가 무너질 경우 동맹의 존속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정치는 상위 권위체가 부재한 무정부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뢰성은 더욱 중요하다.

동맹의 신뢰성 문제를 검증한 앨런 사브로스키(Alan Sabrosky)의 연구는 당시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군사 동맹의 약 25%만이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 동맹국을 지원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다수의 논문에 인용되며 학문적 반향을 일으켰지만, 후속 연구들은 사브로스키의 결론이 과장되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방위 조약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동맹 조약을 동일하게 다루었으며, 그 결과로 유사시에 개입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신뢰성 위반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는 오류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맹 조약에 유사시에 지원할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를 신뢰성 위반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리즈(Brett Ashley Leeds)의 연구는 이러한 오류를 수정하고, 약 75%의 동맹이 조약을 준수했으며 약 25%만이 그렇지 않았음을 밝혀냈다. 이 25%는 여전히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남아 있으며, 동맹 신뢰성 문제는 이처럼 학문적으로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이안 헨리(Iain D. Henry)의 저서 “Reliability and Alliance Interdependence: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in Asia, 1949-1969”는 동맹 신뢰성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저자가 단순히 조약 준수 여부만으로 동맹 신뢰성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동맹국이 자국을 원치 않는 전쟁에 끌어들일 위험성이나 위기 상황에서 자국을 포기할 위험성을 중심으로 신뢰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비록 대만이 미국의 공식적인 동맹국은 아니지만, 주변 동맹

3. IFES 도서관

국들은 미국의 대만 개입 여부를 통해 자신들이 불필요한 군사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 또는 미국이 대만을 포기할 경우 자신들도 포기될 가능성을 기준으로 신뢰성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동맹 청중 효과 이론(alliance audience effects theory)'으로 설명한다.

책의 제목에서 다소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동맹 상호의존성(alliance interdependence)'이라는 표현이다. 이는 동맹국 간의 일반적인 상호의존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성 문제에 있어 동맹국들이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앞서 언급한 대만 문제와 아시아 동맹국들 간의 신뢰성 관계를 그 예시로 들 수 있다.

헨리의 연구는 1949년부터 1969년까지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동맹 청중 효과 이론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 시기는 1969년 닉슨 독트린과 데탕트 이전의 냉전 시기로, 저자는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동맹 정치에서 어떤 양상을 보였는지를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아이안 헨리는 현재 호주 국립대학교 전략 및 방위 연구소의 선임 강사로 재직 중이며, 이 저서는 2022년 미국 코넬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되었다. 본 저서는 동맹 신뢰성과 상호의존성에 관한 중요한 학문적 통찰을 제공하는 연구로 평가될 만하다.

정재욱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나. 도서관 개방서가 운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도서 나눔을 통해 자원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연구자들이 북한·통일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나눔 서가를 운영하고 있다.

1) 기간: 2024. 9. 2. ~ 2025. 2. 14.

2) 장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도서관 (통일관 B106 앞)

3) 도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양 등 전 분야의 도서와 연구소 발간자료, 북한문헌 연구 자료집 등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
도서관 개방서가 안내

본 도서관에서는 개방서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의 상호 교환을 통해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 기증된 도서는 개방서가에 상시비치
- 연락처: 02-3700-0726

4. 예정사항

가. 북한 핵전문가 초청 간담회

- 일시/장소: 2024. 9. 4.(수) 10:00 / 평화관 대회의실
- 주제: 북한 핵능력 및 유지역량
- 발표자: 백승혁(前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

나. 『Asian Perspective』(Summer 2024) 발간

- 발간일자: 2024. 9. 1.

다. 『한국과 국제정치』(2024년 가을) 발간

- 발간일자: 2024. 9. 30.

라. Fellowship 사업

- GKF(국제한반도포럼) 참여 (2024. 9. 3.)
- 연구내용 최종 발표회 (2024. 9. 11.)
- 펠로 특강
  - 일자/장소: 2024. 9. 24. / 평화관 대회의실
  - 강사: 이신재(군사편찬연구소 박사)
- 2024 하반기 워크숍 예정 (2024. 9. 25.~9. 26.)

5. 안내사항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

가입 방법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가입신청서 제출

연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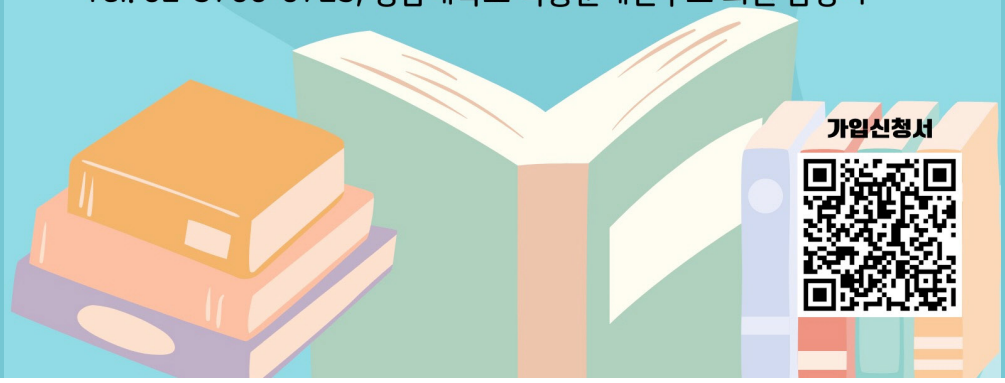
- 학생회원: 30,000원/일반회원: 50,000원/기관회원: 100,000원
- 개인평생회원: 100만원 이상 / 기관평생회원: 300만원 이상
- 온라인 납부: 경남은행 / 570-07-0011980 / '경남대학교'

회원 혜택

- 연구소 도서관 이용
- 연구소 주최 국내외 학술회의 초청
- 연구소 발행 연구물 및 자료 제공
- 북한 전문뉴스 웹사이트 NK Pro (www.nknews.org/pro) 이용

가입 문의

Tel. 02-3700-0725,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담당자



IFES

IFES.kyungnam.ac.kr
ifes@kyungnam.ac.kr
T. 02 3700 070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길2 (03053)